

THE UNITED

INCHEON UNITED F.C. 2015 THE OFFICIAL MATCHDAY PROGRAM OF INCHEON UNITED F.C.



TODAY MATCH



VS



인천유나이티드

울산현대

09.23(수) 오후 7시 30분

인천축구전용경기장

INTERVIEW

미추홀 파이터!
NO.77 이윤표

UTD NEWS

대건고 공격 선봉장 이제호,
그의 잊지 못할 2015



인천유나이티드
6위 / 11승 9무 10패
(9월 13일 기준)

VS

역대 통산 상대전적
(인천 기준)

9승 9무 16패



울산현대
10위 / 7승 12무 11패
(9월 13일 기준)

예상 포메이션



최근 5경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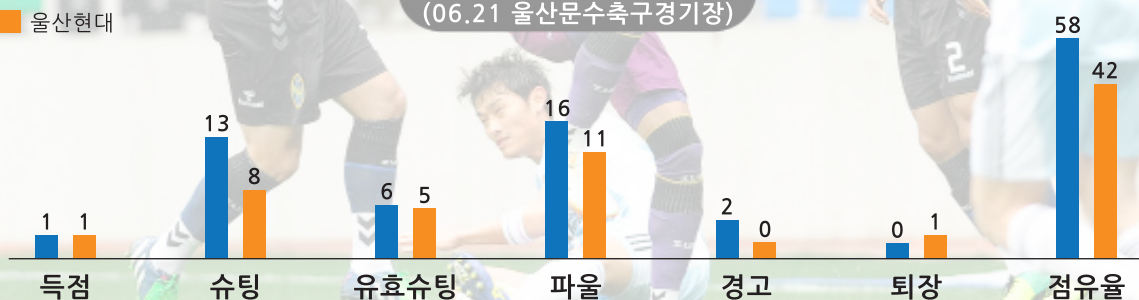
08.19 H	제주유나이티드	1:0 승
08.22 A	전북현대	1:0 승
08.29 H	대전시티즌	2:1 승
09.09 A	광주FC	0:1 패
09.12 A	수원삼성블루윙즈	0:1 패

08.19 H	포항스틸러스	1:1 무
08.22 A	수원삼성블루윙즈	1:3 패
08.29 A	광주FC	2:1 승
09.09 H	전북현대	2:0 승
09.13 A	제주유나이티드	2:2 무

최근 맞대결 기록

(06.21 울산문수축구경기장)

■ 인천유나이티드
■ 울산현대





인천, 울산전을 승리의 축제로!

종이 호랑이가 된 울산현대는 더 이상 인천유나이티드가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다. 올 시즌 두 차례의 맞대결 모두 무승부를 거뒀지만, 이번 홈 경기에서 확실한 승리를 챙겨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를 기분 좋게 마무리하려 한다.

2경기 연속 무승부? 이제는 승리로

올 시즌 인천과 울산은 두 차례 맞대결 모두 1-1 무승부를 거두며 우위를 가리지 못했다.

첫 번째 대결이었던 지난 4월 19일 홈 경기에서 전반 18분 김태환에게 선제 실점하며 끌려다녔지만, 후반 41분 박세직의 극적인 프리킥 동점골로 1-1 무승부를 거두며 기사회생했다. 이 저력을 이어진 6월 21일 울산 원정에서 이으려 했다. 후반 17분 김진환의 선제골로 앞서갔고, 울산 수비수 유준수가 퇴장당하면서 수적 우위까지 점해 승리에 가까워지는 듯했다. 그러나 후반 33분 김신욱의 골을 막지 못하면서 다 잡은 승리를 놓친 바 있다.

그만큼 양 팀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에 승리를 쉽게 허락하지 않은 승부욕을 보인 셈이다. 이제 올 시즌 두 팀의 마지막 대결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승부를 볼 때다. 상위 스플릿을 향한 인천은 부진 탈출을 노리는 울산을 상대로 팽팽한 승부의 추를 승리로 기울게 할 것인가?



‘거탑전쟁 3’, 케빈 VS 김신욱

울산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큰 체격과 키를 자랑하는 케빈과 김신욱(울산)의 자존심 맞대결이다. 두 선수는 강한 몸싸움과 큰 키를 이용한 공중볼 다툼은 물론 2선 공격수를 살리는 패스와 움직임 등 비슷한 점이 많다.

케빈은 인천 공격의 선봉장과 같다. 특점은 물론 2선에서 받쳐주고 있는 김인성, 이천수 등의 플레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연계 플레이가 좋다. 시즌 초반 케빈의 의존도가 높았지만, 서브인 이효균과 진

성욱이 살아나면서 케빈이 부담을 덜 것도 긍정적이다.

울산의 김신욱은 좀 더 해결사 기질이 강하다. 올 시즌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으며, 양동현과 콤비 플레이로 울산 공격의 위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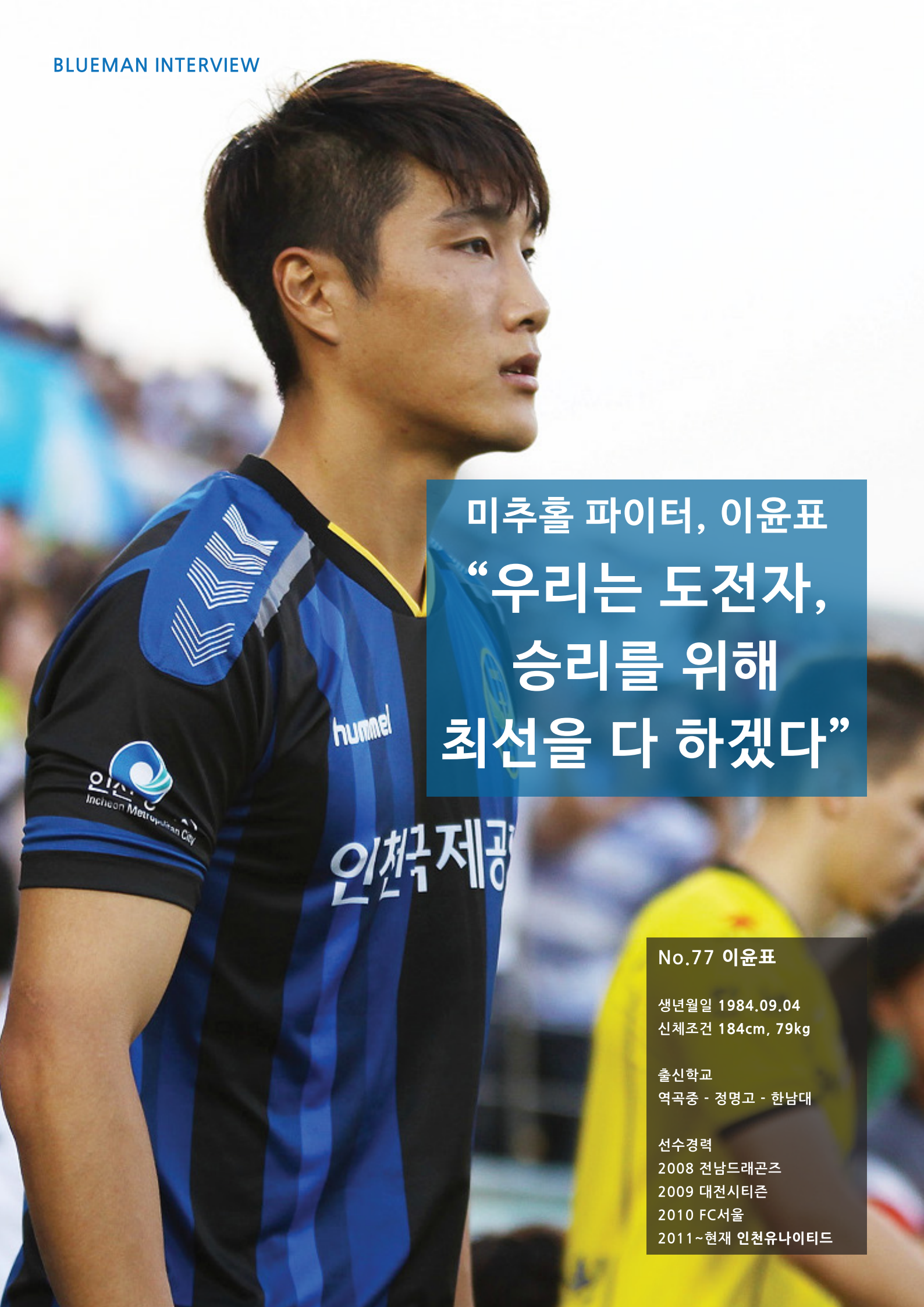
인천은 승리를 위해 김신욱의 고공 플레이를 저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난 6월 21일 원정에서 김준혁 부족으로 김신욱에게 허용한 동점골을 잊을 수 없다. 울산전 승리를 위해서는 요니치를 중심으로 한 인천 수비수들이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관전 포인트★

- 올 시즌 울산전 첫 승 노린다.
- 최근 울산전 4경기 연속 무패
-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 승리로 장식할까?
- 케빈의 첼피 격파 도전!

- 올 시즌 인천전 첫 승 노린다.
- 하위 스플릿 앞두고 부활 준비
- 구본상, 친정팀에 비수 꽂을까?
- 케빈 vs 김신욱, 에이스간 맞대결





미추홀 파이터, 이윤표
“우리는 도전자,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

No.77 이윤표

생년월일 1984.09.04
신체조건 184cm, 79kg

출신학교
역곡중 - 정명고 - 한남대

선수경력
2008 전남드래곤즈
2009 대전시티즌
2010 FC서울
2011~현재 인천유나이티드



Q. 부상 복귀 이후 최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시나요?

사실 좋은 몸상태는 아니에요(웃음). 몸이 덜 만들어진 상태에서 된 거여서 처음엔 좀 걱정도 했어요. 그래도 팀에 보탬이 되고 싶었고 다른 동료들, 특히 같이 수비라인을 서는 선수들이 많이 도와줘서 좋은 성적을 낸 것 같아요.

Q. 지난해와 비교하면 코치진뿐만 아니라 선수단도 절반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적응하는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제가 프로에 오래 있었고 매 시즌 선수들이 바뀌는 건 다반사다 보니 적응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축구라는 스포츠 특성상 같은 팀, 동료라는 생각으로 같이 훈련하고 몸싸움도 하다 보니 금세 정들고 친해졌어요.

Q. 현재 선수단 중 가장 오랫동안 인천에서 뛰고 있는 선수(2011년 입단)인데요. 이제 인천에서 가장 상징적인 선수 중 한 명이 되셨습니다.

상징적인 선수라는 표현에 감사드립니다. 인천에 있으면서 정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아마 제 축구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팀이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인천이 시민 구단 인만큼 그 간 힘든 과정들도 있긴 했지만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것에 정말 대단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Q. 중앙 수비 파트너인 요니치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마음가짐도 좋고 대인방어, 신체조건 모두 탁월해요. 제 생각에 크로아티아 국가대표도 가능할 것 같은데?(웃음) 제가 인천에 온 이후로 매년마다 수비 파트너가 바뀌었지만 서로 얘기를 많이 하니깐 큰 문제는 없어요. 요니치랑은 경기장에서 주로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고 영어가 되는 (김)원식이가 많이 통역도 해주고 있어요.

Q. 고참으로서 팀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은 없으신가요? 부담감은 없어요. 제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저보다 어린 선수들

과 경쟁 상대가 아닌 것도 아니고, 서로 좋은 경쟁자이자 친구이자 동료이자 선배배죠. 저 그리고 친구처럼 어린 후배들과 잘 놀아요(웃음).

Q. 남은 시즌동안 이루고 싶은 팀과 개인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팀 목표는 상위스플릿에 올라가서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진출이예요. 아마 선수들 모두 같은 마음일거예요. 지금도 좋은 결과를 만들고 있지만, 더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어요. 개인적인 목표는 올 시즌 부상 없이 잘 마무리하는 것과 최소실점을 유지하고 싶어요.

Q. 이번 상대가 울산현대입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팀 모두가 강팀이라고 생각해요. 반면 저희는 도전자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 쉬운 팀이 없고 1승, 1골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울산전도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인천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올해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팬 분들이 작년보다 늘은 것 같아요. 경기장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수단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경기장에 많이 와주셔서 큰 응원 보내주신다면 더 흥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기기에서 인터뷰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격 선봉장’ 이제호! 잊지 못할 그의 2015

이름 : 이제호 / 소속 : 인천유나이티드 U-18 대건고 /
포지션 : FW / 신체조건 : 184cm, 70kg

인천유나이티드의 미래 푸른 전사를 소개하는 시간. 이번 시간에 만나 볼 주인공은 인천유나이티드 U-18 대건고의 최전방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호(3학년)다. 이제호는 올 시즌 인천 대건고의 공격 선봉장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팀의 상승세에 감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과 맺어진 인연, 광성중으로의 진학

부평초 졸업을 앞두고 이제호는 중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 프로 산하 유소년팀부터 시작해서 일반 학원 및 클럽팀 등 다양한 팀에서 러브콜이 쏟아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가 선택한 곳은 인천 광성중이었다. 그렇게 그와 인천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초등학교 졸업을 앞둔 당시 광성중 감독님이 김정재 감독님(현 인천FC 남동 U-15 감독)이셨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에게 러브콜을 꾸준히 보내셨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어머니께서 인천을 벗어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셔서 광성중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대건고로의 진학, 전술의 요새로 군림

광성중 진학 후 일취월장을 거듭하던 이제호는 중학교 3학년 때 우성용 감독의 제안으로 최전방 공격수로 보직을 변경하게 됐다. 보직을 변경한 이제호는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도 승승장구를 이어갔다. 그의 맹활약은 자연스럽게 인천유나이티드 U-18 대건고 입학으로 이어졌다.

“광성중 졸업을 앞두고는 오로지 인천 대건고로 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대건고와 연습경기 때 골을 많이 넣어서 당시 감독님이었던 신성한 감독님의 눈에 띄었다고 생각해요. 덕분에 바라던 대로 대건고로 오게 됐죠.” 대건고로 진학한 이후에도 이제호는 성장을 멈추지 않았다. 1학년 때 권로안의 백업 공격수로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던 그는 2학년 들어서 팀의 주축 공격수로 발돋움했고, 3학년이 된 올해에는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두루 보는 등 팀 전술의 요새로 당당히 군림했다.

임중용 감독의 조련 아래 탈바꿈하다

이제호는 2015년 임중용 감독 부임 이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금석배에서 맹활약을 펼치며 준우승 일등 공신으로 우뚝 서며 우수 선수상을 받았다. K리그 주니어 전기리그에서도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우승에 크게 공헌했다.

“임중용 감독님 체제로 전환되면서 우리 팀이 강팀이 되었어요. 감독님께서 늘 선수들을 생각하시고, 편의를 봐주세요. 선수는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게 되는 순환 구조가 이뤄지고 있어요.”



상승 기류 속에 이제호는 지난 4월 난생처음 국가대표팀의 부름을 받기도 했다. 당시 절친한 최범경과 표건희(3학년)와 함께 대한민국 U-18 대표팀의 소집 훈련에 임하고 돌아왔다. 짧은 소집 훈련이었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소속팀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 대표팀 발탁이라는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축구를 시작한 뒤 난생처음 대표팀에 다녀왔는데 새로운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배우고 돌아왔죠. 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가짐을 되새기게 되었어요”

잊지 못할 2015 그리고 감독님

2015년은 이제호의 축구인생에서 잊지 못할 한해다. 금석배 준우승을 시작으로 인천시축구협회장기, K리그 주니어 전기리그 동만 우승과 왕중왕전 8강과 챔피언십 4강(3위 입상)까지 지금까지 달려온 자신의 축구 경력에서 가장 많은 업적을 이뤄낸 한해이기 때문이다.

“2015년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팀원 모두 하나 되어 즐기며 달려오니 좋은 성과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걸 배웠고, 배우고 있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졸업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그는 임중용 감독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감독님께는 죄송하고 감사해요. 제가 말을 많이 피웠는데 ‘과거는 잊을 테니 열심히 하라’는 말로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 감독님의 믿음에 보답하고자 노력했어요. 많은 걸 가르쳐주셔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후배들도 좋은 감독님께 많은 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김도훈 감독



이기형 수석코치



김성일 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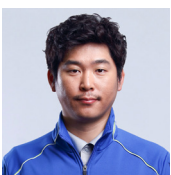
박성철 코치



김이섭 GK코치



이승재 트레이너



이동원 트레이너

① 포지션

② 생년월일

③ 키 / 몸무게

④ 출신교 / 국적



양승민 트레이너



1 유현
YOO HYUN

- ① GK
- ② 1984-08-01
- ③ 184cm/82kg
- ④ 중앙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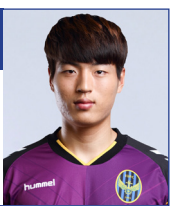
21 조수혁
JO SUHUK

- ① GK
- ② 1987-03-18
- ③ 187cm/80kg
- ④ 건국대



31 이태히
LEE TAEHUI

- ① GK
- ② 1995-04-26
- ③ 187cm/78kg
- ④ 대건고



2 권완규
KWON WANKYOO

- ① DF
- ② 1991-11-20
- ③ 175cm/61kg
- ④ 성균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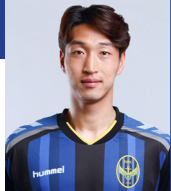
3 김용환
KIM YONG HWAN

- ① DF
- ② 1993-05-25
- ③ 176cm/64kg
- ④ 숭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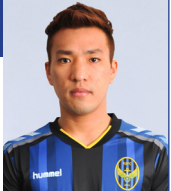
5 김진환
KIM JINHWAN

- ① DF
- ② 1989-03-01
- ③ 186cm/78kg
- ④ 경희대



13 용재현
YUNG JAE HYUN

- ① DF
- ② 1988-07-19
- ③ 179cm/75kg
- ④ 건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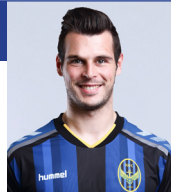
15 김대중
KIM DAEJUNG

- ① DF
- ② 1992-10-13
- ③ 190cm/85kg
- ④ 홍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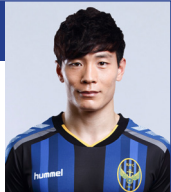
20 요니치
MATEJ JONJIC

- ① DF
- ② 1991-01-29
- ③ 187cm/83kg
- ④ 크로아티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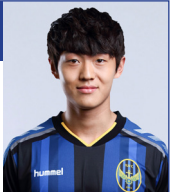
25 박대한
PARK DAE HAN

- ① DF
- ② 1991-05-01
- ③ 170cm/66kg
- ④ 성균관대



28 백승원
BAEK SEUNGWON

- ① DF
- ② 1992-04-18
- ③ 180cm/75kg
- ④ 광운대



44 지병주
JI BYEONG JOO

- ① DF
- ② 1990-03-20
- ③ 180cm/73kg
- ④ 인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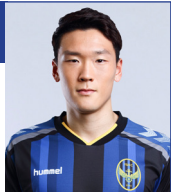
77 이윤표
LEE YUN PYO

- ① DF
- ② 1984-09-04
- ③ 184cm/79kg
- ④ 한남대



4 김원식
KIM WON SIK

- ① MF
- ② 1991-11-05
- ③ 185cm/75kg
- ④ 동북고



6 와다
WADA TOMOKI

- ① MF
- ② 1994-10-30
- ③ 172cm/57kg
- ④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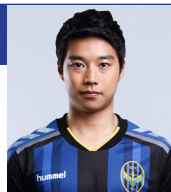
7 김도혁
KIM DOHYEOK

- ① MF
- ② 1992-02-08
- ③ 174cm/69kg
- ④ 연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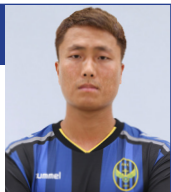
8 안진범
AN JIN BEOM

- ① MF
- ② 1992-03-10
- ③ 175cm/64kg
- ④ 고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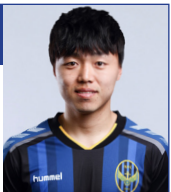
14 이슬기
LEE SEUL GI

- ① MF
- ② 1986-09-24
- ③ 186cm/76kg
- ④ 동국대



22 김동석
KIM DONGSUK

- ① MF
- ② 1987-03-26
- ③ 174cm/68kg
- ④ 용강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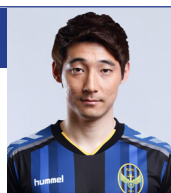
23 윤상호
YOON SANGHO

- ① MF
- ② 1992-06-04
- ③ 179cm/64kg
- ④ 호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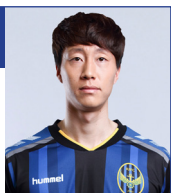
24 박세직
PARK SEJIK

- ① MF
- ② 1989-05-25
- ③ 178cm/73kg
- ④ 한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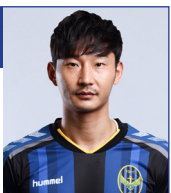
26 조수철
CHO SOOCHUL

- ① MF
- ② 1990-10-30
- ③ 178cm/64kg
- ④ 우석대



10 이천수
LEE CHUN SOO

- ① FW
- ② 1981-07-09
- ③ 174cm/65kg
- ④ 고려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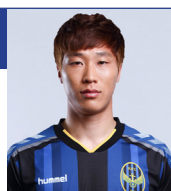
11 김인성
KIM IN SUNG

- ① FW
- ② 1989-09-09
- ③ 180cm/74kg
- ④ 성균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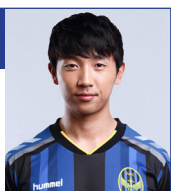
16 이성우
LEE SEONG WOO

- ① FW
- ② 1992-07-11
- ③ 176cm/66kg
- ④ 단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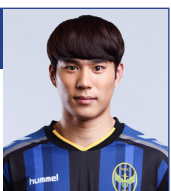
17 김대경
KIM DAEKYUNG

- ① FW
- ② 1991-09-02
- ③ 179cm/70kg
- ④ 숭실대



18 진성욱
JIN SEONG UK

- ① FW
- ② 1993-12-16
- ③ 183cm/78kg
- ④ 대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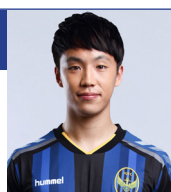
19 케빈
KEVIN ORIS

- ① FW
- ② 1984-12-06
- ③ 192cm/95kg
- ④ 벨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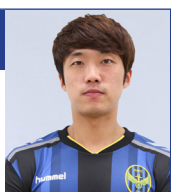
27 이진욱
LEE JINUK

- ① FW
- ② 1992-09-11
- ③ 175cm/60kg
- ④ 관동대



33 이효균
LEE HYOGYUN

- ① FW
- ② 1988-03-12
- ③ 185cm/80kg
- ④ 동아대



인천유나이티드 공식 SNS

facebook

<http://www.facebook.com/incheonutd2003>

twitter

<http://twitter.com/incheonutd>



Play,
Together!

인천유나이티드 프로축구단 공식후원사

Premier
Sponsor



Official
Kit Supplier



Official
Sponsor



Official
Partner



『 인천유나이티드 시즌권으로 축구도 보고~ 식사도 하고! 』

맛있는 바닷바람이
느껴지는 그 곳, **드마리스**
Premier Buffet Restaurant

기쁨과 행복이
만들어지는 곳, **프라임 마리스**
Enjoyable Place for you



드마리스
(인천점)

프라임마리스
(부평점)

시즌권 및 아카데미 회원증 소지자 : **50%** 할인
동반 5인까지 : **30%** 할인
경기당일 티켓 소지자 : **10%** 할인

드마리스 인천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44-4 지젤타워 3층

프라임마리스 부평점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386번지 아이즈빌아울렛 2층

※평일·공휴일 상관없이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12월 한 달만 할인 혜택이 제외됩니다.

invitation to
ELENA KITCHEN



스타셰프 에드워드 권이
함께하는 맛있는 키친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70여 가지 음식과 에드워드권의 전문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엘레나키친!
족식 파스타와 스테이크, LAVAZZA 커피도 만나보세요~

엘레나 키친 with
(승의점) 에드워드권

시즌권 및 아카데미 회원증 소지자 : **20%** 할인
경기당일 티켓 소지자 : **10%** 할인

엘레나 키친 승의점 -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51 홈플러스 지하 3층

※시즌권 및 아카데미 회원증은 평일·공휴일 상관없이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발행일 2015년 9월 23일 / 발행처 (주)인천유나이티드 인천광역시 중구 참외전로 246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3층

전화 032-423-1500 / 홈페이지 www.incheonutd.com / 기사 UTD기자단 취재팀 / 사진 이상훈 UTD기자 / 디자인 (주)에스이엠(www.semsports.co.kr)

* 이 책자에 게재된 글, 사진, 도표 등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소유하며 발행인의 허가 없이 그 내용을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할 수 없습니다.